

# 관광객 500만 유치 청신호

### 순창군, "주말까지 방문객 1000여명에 이룰듯" ... 고추장마을 코스 등 진행

가치역 없는 순창군에 가치여행객이 몰려들면서 관광객 500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가치여행 상품으로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0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목요일 강천산 트레킹열차를 시작으로 강천산 고추장민속마을 코스와 주말 e-train 400여명 등 이주에 총 5회가 진행된다. 가치여행객이 꾸준한 인기를 더해가면서 24일 현재까지 가치여행을 통해 순창을 방문한 숫자는 33회에 3,400명에 이른다. 군은 가치여행 상품중 가장 인기 있는 강천산 단풍 열차가 가을에 집중되기 때문에 올해 가치여행객은 1만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레일에서 선정한 농촌관광 여행상품 '오뎀촌 가치여행'에 순창고추장 마을이 선정돼 가치를 이용한 관광객 특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치역 없는 순창군에 가치여행객이 몰려들면서 관광객 500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짧은 시간에 순창을 가장 잘 느끼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용 버스로 이동해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순창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식사나 농·특산물 구입 등은 지역에서 이뤄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가장 인기있는 코스는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코스다. 강천산은 해마다 1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고추장 민속마을은 고추장 장인들이 마을을 이뤄 사는 곳으로 순창의 대표 효식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순창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순창 농특산물 직매장도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한가지 순창가치여행 인기의 비결은 전략적 마케팅이다. 순창군은 코레일과 순창여행상품 홍보 및 모객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가치역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순창 가치여행이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올해는 더욱 다양한 코스와 내용을 개발해 5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전북 토탈관광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문화유산 활용 관광산업... 소득창출 효자손

### 임실군, 향토·농경문화 접목 관광 상품 큰 호평... 농촌 소득모델 안착 기대

임실군이 추진하는 지역 향토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운데 새로운 농촌 소득모델로 안착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실군은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7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지난해 10월 선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전북도가 지원하는 500년 종가와 함께하는 둔대기 생생문화재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 까지 진행하고 있다.

둔대기마을학교(위원장 이운재)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1,400년 중반에 낙향해 전주이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이용재 고가(민속문화재 제12호)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월별로 색다른 테마의 재현행사가 펼쳐지며 지난 4월 진행된 '삼계석문화전놀이 가세'는 가족단위 체험객의 뜨거운 호평을 얻었다.

오는 27일은 '단오절 살랑살랑 한지 바람 여행'을 주제로 덕치면 소재 한



임실군이 추진하는 지역 향토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운데 새로운 농촌 소득모델로 안착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 장인 김일수(도무형문화재 제35호)씨 작업장과 오수면 이용재 고가에서 진행된다. 동촌마을 고부를 대상으로 한 '중부 고부찬가', 둔대기 주민의 농경, 풍류, 가양주, 백종놀이 등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또한 '한지뜨기 체험', 캘리그라피를 이용한 '단오절 부채만들기', '둔

대기 웰빙 비빔밥 체험' 등 농가의 풍경을 보며 고가에서 한적한 하루를 만끽할 수 있다.

군은 향토문화와 농경문화를 접목한 관광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운영에 박차를 가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소득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시 운영

### 매월 4째주 목요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남원시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구인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해결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월 4째주 목요일 날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면접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구직자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답답하던 기업체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5일 목요일은 영유농동시품(주)에서 생산직 사원을 모집 계획으로 당일 영유농동시품 회사 관계

자의 1차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고 25일 오후2시부터 오후4시까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기타 일자리 관련 정보와 직업훈련 상담 등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구직자는 물론이고 구인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와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진행

순창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군은 지난 23일 영상회의실에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영근 부군수, 군의회 이기자 의원, 신수미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 센터장, 7개 참여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지역 기업은 순창요양병원,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주)스아이지, 영농조합법인 비엔푸드, (주)뉴라이트, (유)혁신엔지니어링 등 7개 기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행사 진행

순창군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금연의 날을 맞았다.

군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의 지정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자체 행사를 진행했다.

우선 지난 23일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이들 500여명을 대상으로 '활기찬 박사의 금연 대작전' 뮤지컬 인형극을 진행해 아이들에게 담배로 인한 피해를 알려주고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의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또 오는 31일 군립공민 강천사 입구에서 강천사를 찾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 CO측정 등 체험 코너를 마련해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춘향골 파프리카 올해 첫 일본 수출 개시

남원의 대표적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가 운봉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하여 28일 1,000박스(5톤)를 시작으로 올해 일본으로 첫 수출길이 열렸다.

남원시에 따르면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50농가 28ha로 연간 약 3,000톤을 생산하며 그중 약 1,000톤 350만달러를 일본 등에 수출할 계획이며 국내에는 농협 하나로 클럽, 서원유통, 안성 농협 물류창고 등 대형유통매장에 납품 할 계획이다.

특히 운봉 고랭지 파프리카 여름 재배지인 춘향골비래봉파프리카작목반

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단지로 지정되어 수출물류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전문가초청 수출컨설팅, 해외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올해에도 파프리카, 양파, 포도, 배, 멜론 등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베트남 등 해외 대형유통매장에서 남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전 등을 통한 수출확대를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안전한 지역 만들기 행정력 집중

임실군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우려지역, 산사태 집중관리지역,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이전에 미비사항 시정애 나섰다.

배수펌프장 및 재난 예·경보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 13개 협업분야 및 유관기관 상황 근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무더위워터를 기존 105개소에서 260개소

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총 3억여원을 투입해 경로당 155개소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군은 여름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자율방재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예찰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취약지역 위험요인을 배수펌프장 및 재난 예·경보시설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 13개 협업분야 및 유관기관 상황 근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 무더위워터를 기존 105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여름방학이나 가을가?

###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